

[일반 논문]

통일 아동문학을 위한 탐색

An Explor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for Unification

선안나
(단국대 초빙교수)

차례

- | | |
|---------------------|----------------------|
| 1. 통일 아동문학, 논의의 필요성 | 3. 통일 아동문학을 위한 탐색 |
| 2. 한국 아동문학의 두 갈래 흐름 | 4. 역사의 주체로서 통일을 대비해야 |

1. 통일 아동문학, 논의의 필요성

함석헌은 해방이 '도둑처럼' 찾아왔다고 하였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해방이 찾아왔고, 민족이 단합하지 못한 채 외세에 휘둘리는 바람에 전쟁과 분단을 겪어야 했다.

해방이 그러했듯 통일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지 모른다.¹⁾ 북한은 1990년대 중반 200~300만 명에 이르는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하였던 식량난 시기 이후 급격한 내부적 변화를 겪고 있고, 오바마의 당선으로 북미관계도 이전과 전혀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다. 북핵 및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이 치열한 대북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 남북관계는 판문점 직통전화의 차단하고 개성공단 폐쇄를 통보하는 듯 악화일로

1)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NIC)는 2008년 11월 20일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25라는 전망보고서에서 "2025년 한반도 통일"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 《연합뉴스》, 2008.11.21.

를 걷고 있어 한반도의 앞날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역사의 비극이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과거를 거울삼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할 때인 것이다. 통일사회를 준비하고 그 이후를 대비하는 일은 비단 정치인들만의 몫일 수 없으며, 사회 각 분야-경제, 국방, 교육, 문화 등-에 속해있는 단체와 개인이 저마다 속한 자리에서 꾸준히 준비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통일은 그만큼 빨라지고 무엇보다 안정되게 맞을 수 있을 것이다.

학문적 이론 연구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지식과 실천을 조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천적 관점을 염두에 두고 쓰게 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이 모두 필요하나, 아직 통일 아동문학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진 적이 없는 만큼 본고에서는 남북한 아동문학의 전체 흐름을 거시적 관점에서 통찰하고자 한다. 남북한 아동문학 흐름의 큰 특징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아동문학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문학이라고 해서 정치사회 현실과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 어린이는 비판력이 없어서 주어진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며, 유년기에 형성된 성향, 취향은 성장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어떤 지식, 정보, 전망을 보여주는가 하는 문제는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휴전 직후부터 분단과 통일을 소재로 삼은 동시와 동화는 꾸준히 창작되어 왔다. 그러나 6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질적 환경 속에서 살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실태에 구체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통일의 당위성만 주장해 왔다. 차이를 알지 못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기에, 오해와 갈등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은 거의 탐색된 적이 없었다.

창작 활동은 그나마 나은 편이고 이론 분야의 성과는 더욱 열악하다. ‘통일 아동문학’을 주제로 삼은 심도 있는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며, 특히 북한 아동문학에 대한 자료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그 이전의 통일 담론이란 북한 아동문학 현실에 대한 객관적 연구 검토의 과정 없이 남한의

관점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데 머물렀다고 하겠다.²⁾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하나로 탄생하였던 한국 아동문학이 어떤 과정을 거쳐 분단 문학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떻게 상이한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 전개에 이르는 큰 흐름을 먼저 통찰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 단계의 아동문학 상황을 진단한 다음, 통일시대의 아동문학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며 어떻게 대비해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2. 한국 아동문학의 두 갈래 흐름

1) 분단 이전의 아동문학

한국아동문학의 역사는 길게 잡으면 100년, 짧게 잡아도 80년에 이른다. 최초의 근대적 잡지 《소년》 발간(1908년)으로 아동문학 형성의 발판이 마련되었고, 방정환의 《어린이》지(1923년)에 이르러 동시, 동화, 아동소설 등 각 장르가 뚜렷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아동문학은 식민지 상태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여타의 나라들과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었다. 침략을 당함으로써 그동안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던 ‘나라’와 ‘민족’에 대한 뼈저린 자각이 있었으며, 자라나는 소년들에게 희망찬 내일을 위탁하고자 나라 전체가 어린이 ‘교육’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풍토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 아동문학이 싹트고 자랐기에, 국가주의며 민족주의, 전체주의 사고 등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었고, 아동문학의 교육적 효용성이 유달리 강조되었다.

한편 아동문학 형성 초기인 1910년대부터 아동문학 작품의 경향은 크게 두

2) 북한 아동문학 관련 주요 논문은 다음과 같다.

최윤정, 「북한 아동시가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3.

이재철, 『남북아동문학연구』, 박이정, 2007.

선안나, 「1950년대 북한 아동문학의 현황—서정 및 서사 장르를 중심으로」, 《동화와변역》, 2008.

——, 「전후 북한 아동문학과 문학인들」, 《어린이책이야기》, 2008년 여름호.

——, 「식량난 시기의 북한 아동문학」, 한국문예창작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 11.

갈래로 나뉘어 나타났다. 하나는 어린이의 본성과 동심의 구현에 관심을 기울인 작품들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이가 살아가는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응시하고 형상화한 작품들이었다. 전자의 작품은 방정환, 마해송, 윤극영, 윤복진, 윤석중 등의 아동문학인이 《어린이》지 등을 주요 무대로 삼아 발표하였고, 후자의 작품은 박세영, 안준식, 송영, 박아지, 이주홍 등의 작가들이 《신소년》, 《별나라》지에 주로 발표하였다.

이때의 시대적 상황으로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세계적으로 번졌고, 일본에도 좌파 공산주의 지식인이 적지 않았다. 상대적 약자인 식민지 조선의 많은 지식인들 또한 계급주의 이론에 심취하였는데, 아동문학분야에서는 《별나라》 잡지가 무산계급 어린이를 위한 잡지임을 분명히 명시하였다. 내용 면에서도 계급의식에 기초한 글이 많았지만, 가난한 아이들도 잡지를 볼 수 있도록 《어린이》에 비해 값이 무척 저렴한 것이 특징이었다. 훗날 이 잡지의 편집진과 주요 필진들이 북한의 아동문학을 일구어가는 주축이 된다.³⁾

주지하다시피, 당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 역시 민족주의 계열과 공산주의 계열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다는 목표가 같았기 때문에 좌파와 우파의 대립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일반 국민들에게도 좌파든 우파든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라 전체의 분위기로 말하자면 좌파적 색깔이 더 짙었다. 아동문학계도 마찬가지여서, 동심 지향과 현실 지향의 문학적 색채는 서로 다를지라도 공통적으로 ‘민족주의’ 담론을 생성하는 모습이었다. 방정환, 윤복진, 윤석중, 이원수, 이주홍, 박세영 등 모두 얼마쯤은 민족주의자였고, 얼마쯤은 계급주의 이론을 받아들여 가난하고 힘없는 처지의 어린이들을 위해 창작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해방을 맞게 되면서 한반도는 극심한 좌우대립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문학 분야에도 좌파 계열의 작가들이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을 각각 만들었고, 아동문학 분과에서 기관지 《아동문학》을 펴내며 해방공간의 문학담론을 주도하였다.⁴⁾ 그리하여 아동문단에도

3) 안준식, 박세영, 송영이 편집을 맡고, 홍구, 정청상, 이동규, 이기영, 박아지, 임화, 엄홍섭, 윤근강, 손풍산, 이주홍, 염근수, 윤복진, 리원우, 권환 등이 주요 필진으로 참가하였다. 이주홍, 염근수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가들이 월북하여 북한 아동문학을 일구었다.

이 시기에 좌우 진영이 뚜렷이 생성되었다.

그러나 문학장에는 정치논리에 완전히 지배되지 않는, 문학장 내부의 고유 원리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지용, 윤복진, 이원수, 박아지, 신고송, 이주홍 등 많은 아동문학인들이 좌파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우파 성향의 지면에 작품을 발표하는 등, 좋은 작품을 쓰는 문인들은 정치적 색깔에 크게 치우치지 않고 창작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세워지고 좌우 대립이 극에 치달게 되는 40년대 말에 이르면, 작가들도 ‘생존의 지리 공간’을 찾아 어느 한쪽의 체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았지만 전쟁과 분단을 맞게 되었듯이, 작가들도 대단한 사상적 신념이 있어서라기보다 문학장까지 제압한 정치논리 때문에 월북이나 월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누구보다 동심 넘치는 작품을 썼던 윤복진이 월북 동시인이 되고, 좌파 성향이 강하였던 이원수, 이주홍이 남한의 작가로 남게 된 것은 그 시점의 선택과 상황이 좌우한 결과였다. 물론 작가에 따라 개인의 사연은 있겠으며 언젠가 세세한 연구가 따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 말하고자하는 바는, 남한에서는 북한 아동문학인이 북한에서는 남한 아동문학인이 서로 다른 체제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쪽의 문학사에서 부인되고 지워져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동서냉전이 와해되면서 남한에서는 1989년 월북 작가와 작품에 대한 해금 조치가 내려져 일부 월북 작가의 작품이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유일한 아동문학사인 『한국현대아동문학사』⁴⁾에 북한 아동문학인들의 존재와 활동은 아예 소거되어 있거나 왜곡된 채 파편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분단 이후 북한 아동문학인에 대해서는 남한 아동문학계에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북한의 경우도 남한 체제에 속한 아동문학인을 전면 부인하다가 1990년대 초반에 이르면 방정환이나 윤석중 등 일부 아동문학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변화를 보이지만, 여전히 남한 아동문학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4) 두 단체는 당의 지령에 따라 통합하여 1946년 ‘조선문학가동맹’으로 새롭게 발족하였다.

5)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따라서 ‘통일 아동문학’을 말하자면 무작정 화해와 통합을 강조하기 전에 월북 및 월남 아동문학인의 실태와 문학적 성과부터 차근차근 파악하고, 전 생애에 걸친 문학세계를 갈무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단절된 아동문학사를 방치한 채 미래의 전망을 논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2) 전쟁과 분단 이후의 문학

전술한 바와 같이 박세영, 박아지, 송창일, 리원우, 김복원 등 카프계열의 아동문학인들은 해방 공간에서부터 북조선 건국 과정에 줄곧 동참하며 북한 현대 아동문학을 일구었다. 반면 북한 출신으로 월남하여 남한의 현대아동문학 형성에 많은 역할을 한 아동문학인들로는 강소천, 박경중, 박홍근, 박화목, 한정동, 김요섭, 장수철 등이 있다. 북한 정부의 경우 친일파 및 악덕 지주를 일차적으로 처벌하였고, 지주 집안의 땅과 재산을 몰수하였으며,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기도 했기 때문에 북한 출신의 작가들도 다양한 이유로 ‘생존의 지리 공간’을 찾아 이동했다.

남한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좌파 색출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였고 여순 사건 및 제주 4·3 등으로 40년대 후반에 이미 십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좌파 문학 활동과 관련하여 아동문학인들도 보도연맹에 가입하고 전향을 맹세하든가 월북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지용, 윤복진, 백석, 현덕처럼 북한행을 택한 이가 있는가하면 이주홍, 이원수, 염근수처럼 남한에 남는 쪽을 택한 문인도 있었다.

마침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남북한의 문인들은 종군작가단을 조직하여 펜을 무기로 싸움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남한에서 ‘반공’의 선두에 섰던 아동문학인들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종군작가’와 ‘월남(越南)작가’, ‘기독교인’, ‘친일부왜혐의’ 작가그룹으로 크게 압축된다. 물론 네 요소는 겹쳐서 나타나기도 한다. 친일혐의 작가가 종군 활동을 하기도 하고, 월남한 기독교인 문인이 반공주의 전파에 더욱 앞장서기도 했다. 전후에 ‘반공’은 남한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되었기에, 더 크게 반공을 외칠수록 더욱 떳떳한 반공적 ‘선민의식’마저 있었던 것이다.

아동문학계에도 반공주의 작가들이 문단의 중심에서 맹활약을 하였는데 마해송, 강소천, 박경중, 장수철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좌파 관련 체험 작가들은 오랫동안 문단의 변방에 위치했고, 현실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회피한 채 ‘환상’ 기법이나 ‘전통’ 소재 창작 등 현실 시공간과 거리를 둔 작품 창작에 몰두하였다. 해방 공간에서 좌우 입장이 모두 자유롭게 표현되었던 것에 비해, 전후 남한 아동문학은 ‘반공’의 관점으로 통일되었고, 좌파 관련 담론은 오랫동안 발설할 수 없었다.⁶⁾

북한의 전후 아동문학 상황을 살펴보면, 전쟁 발발 후 2년 가까이 아동문학 잡지 발행이 중단되었던 남한과 달리, 당에서 발행하는 북한의 《아동문학》지는 전쟁 중에도 결호 없이 꼬박꼬박 발간되었다. 이때 전문 아동문학인의 수는 열명을 채 헤아리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백석, 이기영, 조명희, 최명익 등 일반 시인 소설가들이 일제히 《아동문학》지 필자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작품의 질이 우수하고 사고의 폭이 넓었다. ‘사상적 통일성의 강화’ 외에도 ‘새로운 사회 건설에 대한 희망과 자부심’, ‘민요와 민담의 지속적 발굴’, ‘위인, 영웅의 일화 소개’ 등, 50년대 중후반까지 북한의 아동문학은 다양하며 역동적이다. 그러나 종파투쟁에 따른 숙청의 회오리가 몰아치면서 1958년 이후 북한 아동문학의 다양성은 급격히 위축되며, 1960년대 후반 주체사상이 확립된 이후로는 김일성 개인 우상화와 찬양 문학으로 변모하게 된다.

남북한 국가 수립 이후 1980년대까지 남한과 북한의 아동문학은 상대적으로 더하고 덜한 차이는 있지만, 어느 쪽도 완전히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을 하었다고 하기 어렵다. 남북한 정권은 분단 상황을 끊임없이 이용하면서 체제를 구축해 나갔고,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종류의 담론을 문인들은 알아서 피해갔다. 따라서 휴전 이후 다르게 전개된 남한과 북한의 사회구조와 이에 따른 문학의 변화를 파악해야만 양쪽의 아동문학을 제대로 해명할 수 있다. 남한인의 시각에서 북한 아동문학을 재단하고 북한인의 시각에서 남한 아동문학을 평가하면, 서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김씨 일가 우상화 일색인 북한 아동문학이 남한인의 눈에는 천편일률적으로만 보이듯, 상업적이고 소재

6) 선안나, 「1950년대 동화 아동소설 연구」, 성신여대 박사논문, 2006 참조.

주의적인 남쪽의 많은 아동문학 작품들도 북한인의 눈에는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 아동문학’을 논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학을 객관 화하여 바라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주관적인 ‘나’의 관점을 고수하며 상대를 평가하려 하기보다, 자신이 속한 체제와 문학을 반성적으로 성찰한 후에 상대 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로 선불리 어떤 선입견을 가 지기보다 ‘있는 현상’으로서 그 사회와 문화, 문학을 이해하는 태도를 먼저 가 질 때 객관적 해명과 발전적 전망 또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북한의 경우 특히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국제환경 변화와 연속된 자연재해로 전 인구의 10분의 1가까이 굶어죽는 대 기근을 겪었다. 국가가 자신들을 먹여 살리지 못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인민들은 주어진 직장을 이탈하여 외화벌이나 보 따리 장사에 나섰고, 그 바람에 국가 기능이 상실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정일 은 김일성 유고 상황에서 유혼통치를 하며 ‘붉은기 사상’을 앞세워 ‘고난의 행 군’을 직접 이끌었고, 90년대 후반에 국방위원장에 취임함으로써 권력 장악에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북한 전역의 골목골목 형성된 장마당 과 인민들 속에 자리 잡은 자유 시장경제의 물결은 북한 사회를 이전과 전혀 다 른 곳으로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90년대 북한 《아동문학》지에는 이러한 사회 현실이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김일성 영생문학과 김정일 찬양문학 및 선군사상을 반영한 군대예찬, 인민 희생의 권유 테마만 보인다. 북한의 실제 현실을 알지 못한 채 문학 텍스 트에 실린 풍년예찬 노래, 아파트 자랑, 희생적 인물의 가룩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북한에서 문학인이 된다는 것은 신분상 승의 드문 기회이기에 ‘보이지 않는 칼바람’이 늘 휘몰아치고 있는 내부적 사정 을 이해하고, ‘북한식’ 문학의 스타일과 비판 양식을 자세히 이해할 때,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들의 꿈과 삶과 욕망을 보다 온전히 해명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원조로 북한의 식량난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아직도 자체 식량생산량은 대단히 부족한 형편이다. 그런가하면 돈이면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북한의 세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사회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통일 아동문학’을 추구하는 방식도 이전처럼 원론적이고 당위적인 원칙을 주장하는 데 그치기보다, 서로의 구체적 현실을 자세히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효율적인 접근을 이룰 수 있고 성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통일 아동문학을 위한 탐색

일반적으로 통일 하면 남북한 국토와 국권의 통일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가치의식의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체제 융합도 완성될 수 없다. 국토와 국권의 통일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가치의식의 융합을 위해서는 문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컨대 1950~60년대에 반공, 안보 교육과 문화 속에서 유년기를 보낸 40~50대 이상의 세대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도 냉전의식을 보이는 반면, ‘화해 협력’ 및 ‘민족 동질성 회복’의 통일정책 속에서 성장한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더 이상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북한 역시 무력통일 정책에서 90년대 이후 ‘두 국가 용인’과 ‘국가연합’으로 사실상 공존을 지향해 왔으며, 남북이 ‘통일 기반 조성’에 일정하게 협력해 왔다.

그러나 햇볕정책을 통한 화해무드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는 급격히 냉각되고 단절되어, 앞으로 정치현실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럴 때일수록 문학인들이 ‘가치의식의 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고, 동질성 회복을 추구함으로써 정치 사회적 갈등의 골을 메워야 할 것이다.

통일 아동문학을 위한 노력은 크게 ‘통일 의식 조성’, ‘통일의 준비’, ‘통일사회 대비’의 3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1) 통일의식 조성

국정홍보처에서 조사한 2006년 국민들의 의식가치관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17%가 통일을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답변하였고, 28%는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55%가 서두를 필요 없다고 답변하였다.⁷⁾ 그런가하면 통일의 당위성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이 25.9%나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29세의 응답자 중 35.5%가 “통일의 당위성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혀, 청년층에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22.2%와, 여성의 29.4%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⁸⁾

위의 통계는 통일을 빨리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국민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굳이 통일을 하여 사회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아동문학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통일의 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문학가(동시인, 동화작가, 아동문학평론가)와 이론가들이 먼저 현 단계의 통일의식을 점검하고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민족의 역사 현실과 통일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하였던 권정생 같은 작가도 있었지만, 갈수록 한국의 아동문학은 자잘한 생활 소재 이야기에 그치거나 현실을 외면한 동심주의, 판타지 추구로 흐르는 경향이다. 아동문학인들 자신이 별다른 역사적식, 통일의식이 없는데 그런 작품이 나올 리 만무하다.

따라서 한국의 아동문학인들은 어떤 통일의식을 보이고 있는지, 장르별로 발표 작품을 검토, 분석하여 객관적 실태를 먼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를 아동문학가들의 세미나라든지 아동문학 관련 학술대회 등을 통해 발표 토론하면서 문제점을 활발히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문학인들이 통일의식을 새로이 가다듬고 창작활동에 반영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창작

7) MBC 뉴스데스크, 2007년 1월 26일.

8) 브레이크뉴스, 2006년 12월 14일.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정치권선텩 민(MIN)과 한길리서치에 의뢰, 2005년 12월 2~3일 이틀동안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의 당위성에 공감하는 국민이 7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의 자각도 있어야겠지만, 아무래도 전체를 객관적으로 살피는 연구자, 이론가들이 문제를 환기시키고 촉구하는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창작자들은 민족의 현실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동시, 동화, 아동소설, 동극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활동을 통해 통일의식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창작된 통일 소재나 주제 작품의 경우, 대부분 이산가족의 슬픔, 실향의 아픔을 소재로 삼아 감성을 통해 통일의 당위를 말하는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제는 더 심화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객관적 현실을 보여주는 가운데 이성적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특히 고학년 대상 작품은 분단과 대립으로 인한 고통과 불이익 및 통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망을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형상화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소설에서는 전쟁과 분단 소재 작품이 문학적 중심축을 이루어왔고 치열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한 대하소설이 출현해 왔으나, 아동문학에서는 ‘몽실 언니’ 등 몇 작품 외에는 깊이 있는 역사의식이 반영된 문학작품의 목록을 손꼽기 어렵다. 물론 통일의식을 조성하는 작품이 꼭 분단과 전쟁 등 무거운 현실을 소재로 삼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연령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창작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표현은 가볍고 기발하더라도, 민족의 현실에 대한 창작자의 자각은 보다 명료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 통일의 준비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더라도, 남북한 실제 사회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이 과정이 결여된 상태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연구 및 이론’, ‘창작’, ‘교류’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1) 연구 및 이론

북한의 현실을 알기 위해서는 가능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여 지

식과 정보를 널리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과거 자료의 연구’, ‘현재 자료의 분석’, ‘자료 활용 및 소통 방안 모색’의 세 방향이 있다.

‘과거 자료의 연구’는 아동문학의 형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각 시대별 잡지, 작가, 작품, 이론 등을 복한 사회 구조의 특성과 연계하여 연구함으로써, 남한에 알려져 있지 않은 북한 아동문학의 실체를 보다 다양하게 복원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문학 장르와 세계관, 표현 양식과 기법 등 남북한 문학의 구체적인 차이가 드러나게 될 것이며, 차이를 조명하는 가운데 구체적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 북한 아동문학 작품 및 문학인에 대해 거의 알려지지 않은 형편인 만큼, 아동문학 연구자와 이론가들이 힘을 기울여 밝혀야 할 부분이 되겠다.

‘현재자료의 분석’은 근래 북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현상이나 유행 아동도서 등을 살피는 등, 어린이 현실이나 아동문학과 관련된 각종 동향을 그 때그때 파악하는 것이다. 예컨대 90년대에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간행되었던 번역도서의 실태라든지, 장마당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동도서에 관한 정보, 탈북 어린이들이 느끼는 남북한 아동도서의 차이 등 현재 상황을 자세히 알수록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안 또한 더욱 구체적으로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 활용 및 소통 방안 모색’은 과거 및 현재시기의 북한 관련 자료를 정리 분석하여, 일반 대중과 지식, 정보를 폭넓게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세미나, 학술대회, 잡지 기고 등 북한 현실 및 아동문학에 대한 지식, 정보를 풍부히 제공할수록, 아동문학 창작자나 출판인, 기획자 등이 남북한 문화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작품을 쓰고 책을 펴내고 콘텐츠를 기획하는 등 현장 활동으로 연계할 소스 또한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

그동안 남북한 언어와 문화 차이를 다룬 아동 출판물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양적으로 얼마나 되며 그 내용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 그 실태를 파악하고 정리할 때, 더욱 효율적 창작과 출판 기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창작

창작을 통해 남북한 문화의 차이를 자세히 그려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동시, 동화, 동극 등 장르의 특성에 알맞은 형상화를 통해 어린이가 남북한 문화 차이를 간접 체험하게 하는 방식은,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다. 독자가 내적 화자와 감정을 공유하며 울고 웃는 체험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흔치는 않지만 이러한 시도는 종종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곳에 왔던 서울의 애들을 만나보니 대부분 연삽하고(싸잡하고), 우선우선한(시원 시원한) 것은 좋은데 너무 똥똥해 몸까야(살빼야)할 애들도 많더라. 솔빛나 너는 얼굴에 오목샘(보조개)이 있고, 짧은 바지 아래로 드러나는 다리매(각선크미)가 늘씬해 예의지만 말이야.

—이동렬, 『가나다지킴이』, 일부⁹⁾

그 밖에 남북한 언어와 생활문화 차이를 소재로 삼은 동시를 연작으로 쓴다든지, 같은 소재의 극본을 창작하여 아동극 공연을 하는 등, 전통적 문학 양식을 통해 독자를 감화시킬 수 있다.

기획 분야에서도, 독자의 연령과 단계에 맞게 남북한의 생활 문화적 양식의 차이를 알게 해주는 책을 시리즈로 창작 출판할 수도 있다. 예컨대 언어, 음식, 학교생활, 풍속 등 여러 주제로 나누어 대비할 수도 있고, 남북한에서 많이 사용되는 속담을 예로 들어 현실 문화의 차이를 설명해줄 수도 있다. 속담은 민족 공동의 자산이지만, 생활과 문화 속에서 언어가 비로소 생명력을 얻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사용 속담에는 차이가 있다.

〈북한속담의 예〉

- 고양이 뽀 외에 다 있다. : 재산이나 물건이 없는 것 없이 풍족하게 갖춰졌거나

9) 조대현 외, 『반갑습네다』, 파랑새어린이, 2000.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 비유적으로 하는 말.

· 자가사리가 룡을 건드린다. : 도저히 맞서 상대할 수 없는 강한 상대를 멋도 모르고 함부로 건드리는 것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골목골목마다 장마당이 생겨나면서, 장에 가면 ‘고양이 뽀 외에 다 있다’는 속담이 민간에 많이 쓰이게 되었다. ‘자가사리’는 ‘자리’를 말하는데, 비슷한 남한 속담으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가 있다. 이처럼 예부터 있었거나 새로 생겨난 속담들을 대비하면서 언어 뿐 아니라 생활과 문화에 대한 정보까지 줄 수 있을 것이다.

(3) 교류

햇볕정책으로 꾸준히 교류와 소통이 이어지던 남북관계가 단절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북한은 12.1 조치를 통해 육로 통행 제한 및 차단과 상주인력 감축 등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11월 28일 남북 철도가 중단되고 북한 내 남측 상주인력이 철수를 시작하였으며, 개성 육로 관광도 시행 1년 만에 중단되게 되었다.

비록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된 상황이지만, 상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지속적 화해와 통합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¹⁰⁾ 남북한 아동문학의 교류와 소통의 방법은 다양할수록 좋다. 아동문학 학술교류, 남북한 아동문학인 창작 세미나 등 크고 작은 단체의 만남도 좋고, 남북한 우수 창작집 및 아동문학 이론서를 일정 부수 서로 교환하는 서적 교류는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대만의 경우 정책적으로 중국에 매해 일정 부수의 우수 신간을 기증하는 문화정책을 꾸준히 펴왔고, 갈수록 분량이 늘어나는 추세라 하였다. 북한 현실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남한의 어린이책을 선별하여 인민학교나 소년궁전에 전달하

10) 박태상, 「남북한 문화교류 어디까지 왔나」, 『대한민국 문화메카』, 한국지역문화인협회, 2008, p.84.

박태상 교수는 남북한 문화통합이론으로서 ‘사랑의 삼각형 적용이론’을 제시하였다. 문화적 통합이론은 정서적 통합을 지향하므로, 남북관계를 부부관계나 연인사이로 상징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즉 사랑을 나누는 남녀관계처럼 사소한 오해로 인하여 극한적인 대치나 관계의 파탄까지 다다를 위험성도 상존하며, 상호 세밀한 부분까지 감정을 교류하여 아주 친밀한 관계로 진전되어 열정의 단계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본다.

고, 북한의 좋은 아동문학 작품집을 들여와 남한의 어린이들에게 읽히면 문화적 정서적 이질감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한 아동문학인들이 각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전래동화를 모아 공동 출판하는 것도 의미 있다. 민족의 공동자산인 구전동요와 옛이야기를 선별 출판하여 남북한 어린이들에게 함께 읽힌다면 민족 동질감 회복과 공동체 정서 함양에 효과가 있다. 남북한 어린이가 함께 하는 동시 낭송 대회나 글쓰기 한마당 등, 어린이와 아동문학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계기들도 다양하게 마련할수록 좋을 것이다.

남북한 교류와 접촉이 더욱 어려워진 현 상황에서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남북한 아동문학인들이 통일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향할 필요가 있다.

3) 통일사회의 대비

언젠가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미리 대비해 가야 한다. 예컨대 남한 내에서도 지역 갈등 빈부 갈등이 심각한 만큼 통일 사회에서 남북한 주민 사이에 가치관 및 경제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있으리란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사회 전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아동문학 분야 역시 상이한 체계와 문학적 관습, 창작 풍토로 인하여 다양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모색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창작분야에서는 통일 이후의 사회를 예상하며 쓴 작품들이 드물지만 간혹 눈에 띈다.

“뭐, 교통 안전원이 네 장래 희망이라구? 겨우? 후후, 웃긴다.”

앞자리에 앉았던 은지가 꽃님이에게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은선이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을 모르냐며 은지를 나무랐지만, 꽃님의 얼굴은 이미 빨개진 뒤였습니다.

(중략)

북한 가수 전해영이 부른 ‘휘파람’을 꽃님이든 멋들어서 불려 여러 사람의 뜨거운 박수를 받은 것입니다.

“정말 후진 노래야. 가사도, 멜로디도 20세기 고물이야.”

은지는 이 한마디를 하더니 꽃님을 아는 척도 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로 그냥 헤어졌던 거지요.

—구민애, 「찢어진 청바지는 꿰매야 해」¹¹⁾

통일이 되어 남북한 친척들이 서로 오가게 되었는데, 문화 차이로 어린이들끼리 갈등을 빚는 이야기이다. 어른 사회의 큰 갈등도 있지만 어린이들 세계 역시 통일 사회에서 다양한 종류의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작품은 문화 차이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대립과 해결 과정을 보여준다. ‘미국놈 바지’인 청바지, 그것도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남측 친척이 안타까워, 북한 출신의 꽃님이든 소년단 붉은 목수건을 꽃모양으로 잘라 찢어진 청바지를 튼튼하게 박음질해줌으로써 갈등은 해소된다. 이 작품은 비교적 사소한 이야기에 동화다운 결말에 머물렀지만, 통일사회를 예상하고 대비한 힘 있는 창작품들이 앞으로 보다 활발히 생산되어야겠다.

아동문학 연구와 이론 분야에서는 현재 통일 사회를 대비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인데, 분단 국가였다가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 등을 참고하여 통일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문학 분야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예상하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아동문학 장르만 해도 남한과 북한이 전혀 다르게 형성되어 있고, 문학사도 다르고 문학 용어도 다르며 미학적 가치도 다르다. 그 모든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으며, 남북한 아동문학이 어떠한 공동목표를 수립하고 지향해야 할 것인지 예상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11) 『반갑습네다』, 앞의 책, pp.41~44.

4. 역사의 주체로서 통일을 대비해야

한국의 아동문학은 형성 초기부터 동심주의 계열과 현실주의 계열의 두 갈래 흐름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아동문학인의 수가 많지 않았기에 문인들 사이에 별다른 대립은 없었으나 해방 후 정치논리가 문학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아동문학도 좌우 색채가 분명해졌고, 한국전쟁이 터지자 남북한의 문인들 역시 펜을 무기로 전쟁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정치와 문학의 원리가 다른 만큼 정치 논리로 문학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인데, 그동안 남북한의 아동문학담론은 철저히 체제 위주의 관점으로 서술되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아동문학의 도도한 흐름을 보다 전체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짚어볼 때이다.

휴전 이후 남북한의 아동문학은 상이한 체제 속에서 전혀 다르게 전개되어 왔다. 남한의 경우 경제적 성장으로 출판 시장이 활성화 되고 아동문학도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지만, 군사독재체제에서 반공 이데올로기와 비판력 부재 풍토로 오랫동안 우파적 담론에 치우쳐 왔다. 동서냉전시대의 종식과 더불어 좌파 작가 작품들이 복원되면서 남한 아동문학은 이전에 비해 훨씬 균형 감각을 회복하였지만, 그래도 좌파관련 작가의 삶과 문학은 여전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라 지속적 탐구와 복원이 필요하다.

북한 아동문학의 경우 김일성 유일체제가 확립되기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사회 건설에 대한 희망이 작품에 활기차게 반영되고 다양한 담론이 역동적으로 전개되었으나, 주체사상이 완성되면서 70년대 이후 아동문학은 김일성과 김씨 일가 찬양 일색이 된다. 경제적으로도 50년대에는 전후의 폐허에서 남한보다 빠른 발전과 성장을 보였으나, 점점 정체되고 낙후되어 가중된 식량난으로 90년대 중반에는 국가 시스템이 거의 마비되는 위기까지 맞게 된다. 그리고 현재는 자본주의 정신이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만, 북한 아동문학 작품만 읽어서는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북한 사회의 구조와 실태를 사실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북한 아동문학의 고유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서술된 남한 아동문학사 자체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북한 아동문학의 현실을 보다 폭넓고 세세하게 연구하는 일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또한 남북한의

상이한 정치 문화 사회적 환경이 각각의 아동문학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비교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시대의 아동문학을 시급히 고민해야 할 때이다. 통일이 언제 될지, 과연 오긴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분단 상황이 어린이를 포함한 민족의 현실과 미래를 끊임없이 왜곡시키고 삶의 질을 저해하는 만큼, 하나의 전체로서 한국 아동문학의 정체성 회복을 지향함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되었다 통일/ 무엇이? 산맥이/ 그렇다 우리나라 산맥은/ 한 줄기다 한 줄기//
되었다 통일/ 무엇이? 강들이/ 그렇다 두만강과 낙동강이/ 바다에서 만난다.//
되었다 통일/ 무엇이? 꽃들이/ 그렇다 봄만 되면 꽃들이/ 활짝 핀다 일제히//
되었다 통일/ 무엇이? 새들이/ 그렇다 팔도강산 구경을/ 마음대로 다닌다.//
통일이 통일이/ 우리만 남았다./ 사람만 남았다.

— 윤석중, 「되었다 통일」

이 동시를 읽으면 통일이 참 쉽게 느껴진다. 그러나 정작 통일 보다 그 이후의 통합이 더욱 힘들 수 있음을, 지난 역사를 통해 충분히 배울 수 있었다.

지금 한국 아동문학에 필요한 것은 통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통일을 제도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각 분야에서 준비해나가야 하는 일, 아동문학 분야에서도 독자적으로 대비해야 할 문제로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창작 면에서는 남북 관계를 당위적 명제나 소재주의로만 다루던 기존의 방식을 극복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북한의 실태를 자세히 이해하는 가운데 균형 있는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아동문학 작품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각 분야별 주체가 저마다 명료한 의식으로 대비하고 있을 때, 통일이 ‘도둑처럼’ 올지라도 주인답게 당당히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태상, 「남북한 문학교류 어디까지 왔나」, 『대한민국 문학메카』, 한국지역문학인협회, 2008.
- 이재철, 『남북아동문학연구』, 박이정, 2007.
- _____,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 조대현 외, 『반갑습네다』, 파랑새어린이, 2000.
- 선안나, 「1950년대 북한 아동문학의 현황 - 서정 및 서사 장르를 중심으로」, 《동화와변역》, 2008.
- _____, 「식량난 시기의 북한 아동문학」, 한국문예창작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 11.
- _____, 「전후 북한 아동문학과 문학인들」, 《어린이책이야기》, 2008년 여름호.
- 《연합뉴스》, 2008. 11. 21.
- MBC 뉴스데스크, 2007. 1. 26.
- 브레이크 뉴스, 2006. 12. 13.

Abstract

An Explor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for Unification

Seon, An-na

Children's literature cannot be apart from the realities of politics and society even though it targets children. Having no solid critical skills, children embrace information as it's provided in an unconscious manner. Their tendencies and tastes have ongoing impacts on their growth process once they're formed in childhood. Therefore, it's incredibly important to figure out what kind of knowledge, information and prospects should be offered to children as to unification for the sake of the nation's future.

This study reviewed how the issues of unification were dealt with in children's literature and focused on examining how to prepare for and get ready for unification. As for methodology, children's literature was investigated in three periods, which include ① before Korea was divided into two, ② after the Korean War and division, and ③ after unification. Each of the periods was looked into for characteristics and tasks.

Period ① spans from the Japanese rule to before the Korean War. In that period, Korea's children's literature was born and grew, evolving into a separate genre. Even before the physical environments of division were created, there were certain right and left wing flows within children's literature. After Korea took back its independence, North and South Korea had their own children's literature grow.

In Period ②,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became a fact after the

fratricidal Korean War. It covers a period from after the truce to the present day. In South Korea, children's literature went through huge changes and growth both in quantity and quality thanks to the miraculous economic growth and the activation of the publication market. There was apparent freedom of expression in North Korea right after the war was ended. However, the Juche Ideology created a dominating tendency of worshipping the ruler. Both North Korea's children's literature and South Korea's children literature expanded within a scope allowed by the regimes and accordingly succeeded in speaking about only half the discourse in varying degrees.

And Period ③ covers the years after unification. There is no knowing when the two Koreas will be unified again. Today there is ongoing awareness of division in children's literatur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peaking in a fundamental sense, the division situation constantly distorts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people including children. Thus there is a need to pursue the identity recovery of Korea's children's literature as a whole. In the study, children's literature of the unification period was discussed in three phases, which were formation of unification consciousness, preparation for unification, and preparation for a unified society.

What's needed in Korea's children's literature is a paradigm shift of unification. It's also required to graduate from the old approach toward unification as a system and to make preparations in the long term.

주제어 : 아동문학(children's literature), 남북한 아동문학(children's literature of North and South Korea), 통일의식조성(formation of unification consciousness), 통일준비(preparation for unification), 통일대비(getting ready for unification)